

#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6권 2호(2013년 6월)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 목 차

3세부터 7세 까지 어머니의 애정/온정적 양육태도의 변화가 아동의 학교적응에 주는 영향	김수정 • 곽금주
진술조사 맥락에서 아동기억에 대한 발달심리학적 고찰	이승진
아동의 혼합정서 이해에 대한 정서 이야기 개입 효과	정윤경 • 송현미
후기 아동기의 종교성과 공격성의 관계에서 친사회성의 매개효과 연구	박지은 • 설경옥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 특성 연구 - 학교폭력 집단유형의 변화에 미치는 변인 -	조영일
부부갈등과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 및 양육행동이 유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김종훈 • 성지현
어머니의 양육신념, 양육효능감, 유아의 자아존중감의 관계연구 - 내국인 어머니와 중국계 이주 어머니를 대상으로 -	방은정 • 성지현
성숙한 노화 태도와 성공적 노화 및 심리사회적 성숙의 관계 - 성숙한 노화개념의 탐색 -	안정신 • 정영숙 • 서수균
아동의 애착 안정성과 자기 조절 능력이 몰입행동에 미치는 영향	송하나

한국발달심리학회

2013년 6월 15일  
2013년 6월 15일

편집위원장: 정윤경(가톨릭대학교)  
편집위원: 박영신(경북대학교)  
이현진(영남대학교)  
김혜온(목포대학교)  
정영숙(부산대학교)  
송현주(연세대학교)  
조영희(California State)  
송하나(성균관대학교)

발행처: 한국발달심리학회  
발행인: 성은현(호서대학교 유아교육과)  
주소: 충남 천안시 동남구 각원사길 78  
천안캠퍼스 호서대학교 유아교육과(내)  
전화: 041-560-8132

심사위원(가나다순):	곽금주 (서울대학교)	곽윤정 (세종사이버대학교)	김근영 (서강대학교)
김명식 (전주대학교)	김민희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김수정 (서울대학교)	김연수 (서울대학교)
김현수 (한양대학교)	김희화 (부산대학교)	남은영 (서울여자대학교)	박영신 (경북대학교)
방희정 (이화여자대학교)	설경옥 (이화여자대학교)	성은현 (호서대학교)	성현란 (대구가톨릭대학교)
송하나 (성균관대학교)	송현주 (연세대학교)	심희옥 (군산대학교)	안신호 (부산대학교)
오영희 (덕성여자대학교)	유경 (한림대학교)	유연옥 (계명대학교)	이승복 (충북대학교)
이승연 (이화여자대학교)	이옥경 (성신여자대학교)	이종숙 (덕성여자대학교)	이현진 (영남대학교)
장문선 (경북대학교)	정명숙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정영숙 (부산대학교)	조아미 (명지대학교)
조영희 (California State University)	최영은 (중앙대학교)	최윤경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심리학회지: 발달은 한국발달심리학회의 기관지로서 연 4회 간행되며, 발달심리학 분야의 연구논문, 자료 및 논평을 게재한다. 한국심리학회지: 발달은 학회 회원에게는 무료로 배부하며, 비회원에게는 일정한 구독료를 받고 배부한다. 비회원의 구독에 관해서는 학회사무실로 문의하기 바란다.

This journal is issued quarterly-annually and carries research articles based on empirical data & theoretical review. Subscription inquiries and manuscript submission should be directed to: Editor,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Department of Childhood Education, Hoseo University, Cheon An, Korea.

Editor: Yoon-Kyoung Jeong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Associate Editor: Ha-Na Song (Sungkyunkwan University)  
Hye-On Kim(Mokpo National University) Hyeon-Ju Song(Yonsei University)  
Hyeon-Jin Lee(Yeungnam University) Young-Hee Cho(California State University)  
Young-Shin Park(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Young-Sook Jeong(Busan National University)

\* 이 학술지는 2011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출판되었음

# 어머니의 양육신념, 양육효능감, 유아의 자아존중감의 관계연구<sup>1)</sup>

-내국인 어머니와 중국계 이주 어머니를 대상으로-

방은정                      성지현<sup>2)</sup>

성균관대학교 아동·청소년학과

본 연구는 어머니의 양육신념 및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내국인 어머니와 중국계 이주 어머니의 비교를 통해 알아보았다. 만 3~6세 유아(n=306)를 양육하는 내국인 어머니(n=203)와 중국계 이주 어머니(n=103)의 양육신념 및 양육효능감을 알아본 후, 유아들의 자아존중감을 직접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내국인 어머니의 양육신념 및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자아존중감은 중국계 이주 어머니 및 유아보다 각각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개인변인(연령), 어머니의 개인변인(학력, 월평균 수입, 연령), 양육신념 및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자아존중감 간의 상관관계 결과 또한 내국인과 중국계 이주 어머니 사이에 차이를 나타냈다. 내국인 어머니와 중국계 이주 어머니 모두에서 양육효능감이 유아의 자아존중감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반적으로 낮은 양육효능감을 가진 중국계 이주 어머니의 유아들이 내국인 어머니의 유아보다 낮은 자아존중감을 나타낸다는 결과는 유아의 긍정적인 자아존중감 형성에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주요어 : 중국계 이주 어머니, 어머니 양육신념, 어머니 양육효능감, 유아 자아존중감

단일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해오던 우리나라는 1990년대 이후 급격한 국제결혼, 노동이주 및 귀화 등의 증가(통계청, 2007, 2012)로 인해 점차 다민족, 다문화가 혼재된 다문화 사회에 가까워지고 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1년 기준한국 다문화인구는 총 136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5%

에 달한다(통계청, 2011). 국제결혼가정은 이들 다문화가정의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금까지의 국제결혼 증가 추세가 앞으로도 지속될 경우 2020년에 출생할 신생아의 약 32%는 국제결혼을 통한 다문화가정의 자녀일 것으로 전망된다(양순미, 2007).

1) 본 연구는 방은정의 2013년도 석사학위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2) 교신저자: 성지현, E-mail: sungjh@skku.edu

그러나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국제결혼을 통해 형성된 다문화가정의 아동들은 내국인가정의 아동들에 비해 부정적인 가족관계를 경험하기 쉬우며 이로 인한 심리사회적 문제나 학교 부적응과 같은 문제가 초래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혜미, 원서진, 최선화, 2011). 특히, 이들 아동들의 이중문화 가정환경에서 기인한 고민들을 상담하고 조언해 줄 수 있는 대상이 크게 부족하고 이러한 고민들이 학습부진, 자아정체성 혼란 등의 문제로 발전하게 되는 위험에 노출 되어있다(신혜정, 2007). 성장기의 이러한 부정적인 경험은 그 정도가 미미하더라도 인지적, 정서적 성장에 장애요인이 되어 일생동안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선행연구들을 통해 여러 차례 제기되어 왔다(김혜영, 2000; 김정란, 2003; Buist, Dekvoic, Meeus & Aken, 2003). 따라서 이들 아동들이 겪을 수 있는 부정적 경험들을 방지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대책들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인간의 성장과 발달이 가장 급격히 이루어지는 유아기 발달에 있어 인지적, 정서적 성장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아존중감이 다문화 가정과 내국인 가정 유아들에게 어떠한 차이가 있고, 이와 관련된 변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인간은 타 구성원들과의 관계형성을 통해 사회적 존재로서의 만족감을 획득하고, 궁극적인 삶의 질 향상의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이 때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타인에 대한 존중을 가능하게 하여 원만한 관계 구축의 기초를 제공한다(배경숙, 조희숙, 2004).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믿음(Branden, 1994), 또는 스스로에 대한 인정과 존중,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는 정도(Blascovich & Tomaka, 1991)를 의미한다. 따라서 자아존중감

은 인간의 환경적응 및 인성발달, 그리고 긍정적인 자아실현 및 대인관계 형성, 그리고 성공적인 역할 수행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기능이라 할 수 있다(Branden, 1994, Coopersmith, 1967). 자아존중감은 만 2세경부터 나타나는 자조(self-help) 기술과 함께 발달하기 시작하여(송명자, 1995) 만 5세를 전후로 확고해진다(고현경, 이승연, 2010; Bee, 1978). 유아의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유아기의 자아존중감은 연령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진영, 이경화, 2001).

자아존중감이 최초로 형성되는 시기의 유아에게 있어 어머니는 생후 최초의 관계를 형성하여 오랜 기간 동안 가장 많은 접촉을 하게 되는 타인이자 유아의 자아존중감 형성과 발달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존재라 할 수 있다(Branden, 1994; Gecas & Schwalbe, 1986; Richards, Gitelson, Petersen, & Hurtig, 1991). 어머니의 인지적 특성들 중, 양육신념은 자녀의 성장과 발달 전반에 관해 어머니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인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유아의 인지적 행동이나 정의적 행동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영향을 주는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전경숙, 1992). 즉, 어머니가 어떠한 양육행동을 선택할 때 그 기준이 되는 근원적 가치관이자 비교적 안정된 부모의 사고형태로 유아의 인지적 또는 정의적 행동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는 변인이기도 하다. 박영애, 최영희, 박인전과 김향은(2002) 및 김경연(1993) 등은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자녀의 자아존중감과 높은 관련이 있다고 밝혔는데, 여러 선행 연구(Goodnow, 1988; Goodnow & Collins, 1990; Miller, 1988)들은 양육신념이 부모의 양육 행동에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자녀의 발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홍성임(2005)의 연구에 따르면 양육신

념은 부모의 신념, 문화, 교육수준, 계층, 직업 및 자녀의 성별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인성 및 성숙주의를 강조하는 양육신념을 가진 어머니의 유아가 지적성취 및 환경주의를 강조하는 어머니의 유아보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효능감은 양육신념과 같이 부모의 인지적 특성 가운데 하나로서, 자신이 부모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기대로 정의된다(Johnston & Mash, 1989).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그 높낮이에 따라 자녀에 대한 태도와 자녀의 능력에 대한 믿음, 그리고 적절한 지원제공 등과 같은 상황에 따른 융통성 및 일관성의 정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Mondell & Tyler, 1981).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어머니의 연령이 높을수록(문혁준, 2005), 자녀의 연령이 높고 가정의 소득이 높을수록(송미혜, 송연숙, 김영주, 2007),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안선희, 김선영, 2004)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효능감이 높은 어머니는 자녀에 대해 보다 수용적이고 비차별적인 양육행동을 나타내며 자녀와의 원활한 상호작용을 이루는 경향을, 양육효능감이 낮은 어머니는 통제적, 강압적이며 처벌적인 양육행동과 수동적인 부모역할에 그치는 양태를 많이 보였다(Coleman & Karraker, 1998). 이경옥과 전인옥(1999)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부모-자녀 관계형성에 작용함으로써 유아의 자아존중감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인지적 측면으로서의 양육신념과 양육효능감에 대한 관심은 다양한 관련연구로 이어져 왔다. 많은 연구자들이 어머니의 양육신념 및 양육효능감과 어머니의 사회경제적 지위, 연령, 교육수준 및 자녀의 기질, 성별 등의 다양한 변인들 사이의 관계 및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았고(고윤희, 2001;

송미혜, 송연숙, 김영주, 2007; 안지영, 2000; 최형성, 정옥분 2005), 어머니의 양육신념과 양육효능감이 유아들의 자기효능감, 스트레스와 같은 정서적 측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이경옥, 전인옥, 1999)등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연구의 대상 연령에서 각기 차이가 있다. 양육신념과 양육효능감 간의 관계를 지지하는 연구(이경옥, 전인옥, 1999)도 있지만, 유의미한 관계를 밝히지 못한 연구(안지영, 2000) 또한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신념과 양육효능감이 유아의 자아존중감발달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고, 이러한 관계 및 영향에 있어 내국인 가정과 다문화 가정의 어머니와 유아에게 어떠한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동시에 알아보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내국인 어머니와 국내 다문화가정들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중국계 이주 어머니의 양육신념과 양육효능감 사이의 관계 및 이들 변인들이 유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비교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선행연구들의 관점을 보다 확장하여 연구문제를 살펴보고 다문화가정의 유아와 어머니를 이해하는 토대를 마련코자 한다. 중국은 세계 3위의 국토면적과 세계 최다인구를 보유한 동시에 56개 민족으로 이루어진 다민족, 다문화 국가로서(외교통상부, 2012),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문화 전반에 영향을 미친 유교의 발원지이다. 그러나 공산혁명 이후 공산주의 및 마오시즘이 결합된 문화혁명을 통해 전통적인 유교적 가치관과 다민족, 다문화의 다양성은 크게 쇠퇴 하였으며 공산당 중심의 국가 주도체제는 통일성이 강조된 독특한 교육, 문화, 사상 체계를 형성하였다(장정호, 2004; 외교통상부, 2012).

그러나 이러한 획일적이고 통일성이 강조된 사회적 배경을 가진 중국의 어머니가 한국의 어머니에 비해 전체적인 양육효능감이 낮고 자녀에 대한

기대심리가 높으며 유아의 자아존중감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선행연구들(김염춘, 2012; 刁麗君, 2011)의 결과는, 국내 결혼 이주 어머니의 과반 수 정도가 중국계임을 생각해 볼 때 전체 다문화가정들 중에서도 중국계 이주 어머니가정에 대한 연구가 가장 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다문화가 혼재된 가정환경 속에서 인지적, 정서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이들 가정의 유아에 대해서도 내국인 가정 유아에게만 맞춰진 기존의 편중된 시각에서 벗어나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는 국제결혼을 통해 형성된 중국계 결혼 이주 어머니와 내국인 어머니의 양육신념과 양육효능감, 그리고 유아의 자아존중감 사이의 관계 및 영향에 대한 비교를 통해 그동안 내국인 가정 위주로 진행된 관련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함과 동시에 다문화 및 내국인 어머니와 자녀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관련정책 형성과 후속연구를 위한 유의미한 자료로서의 연구결과 제공을 연구의 주목적으로 한다.

### 연구문제

<연구문제 1> 내국인 어머니와 중국계 이주 어머니 간의 양육신념, 양육효능감 그리고 유아의 자아존중감은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유아의 개인변인(연령), 어머니의 개인변인(학력, 월평균 수입, 연령) 및 양육신념과 양육효능감은 유아의 자아존중감과 관계가 있는가? 이런 관계가 내국인 어머니와 중국계 이주 어머니 가정 간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유아의 개인변인(연령), 어머니의 개인변인(학력, 월평균 수입, 연령), 어머니의 양육신념 및 양육효능감이 유아의 자아존중감을

얼마나 설명하는가? 내국인 어머니와 중국계 이주 어머니 가정 간에 차이가 있는가?

## 방 법

###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 K구의 다문화가정 밀집 거주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12개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만 3~6세 유아의 어머니 690명에게 어머니의 학력, 월평균 수입 등을 포함한 인구학적 배경을 묻는 질문지와 어머니의 양육신념 및 양육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지를 배부하여 358부가 회수되었다. 회수된 설문지 중 불성실한 설문지 52부를 제외한 306부(내국인 어머니 203부/중국계 이주 어머니 103부)의 설문지를 제출한 어머니와 그 유아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 측정 도구

#### 유아의 자아존중감

유아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Harter와 Pike(1984)에 의해 개발된 유아용 자아존중감 척도를 이진희(2011)가 번안하여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척도의 문항은 총 24문항이며 본 연구에서 측정된 문항 신뢰도 Cronbach  $\alpha=.88$  였다. 본 도구는 그림문항과 질문문항을 동시에 사용하는 양방향적인 검사형식을 취하고 있어 유아의 언어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구성된 척도이다. 본 척도는 ‘색깔의 이름을 안다’, ‘유치원에서 함께 놀 친구들이 많다’, ‘두발 바뀔 때 기를 잘 한다’, ‘어머니가 책을 많이 읽어준다’

등의 질문 문항을 통해 아동의 인지적 능력, 동료 수용, 신체적 능력, 어머니 수용의 하위변인들을 측정하며, 긍정도가 높을 경우 4점, 부정도가 높을 경우 1점으로 평점하였다. 가능한 총점 범위는 24점에서 96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본 척도는 각 하위변인을 각각 살펴볼 수 있는 구조로 제작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각 아동의 전반적인 자아존중감 측정에 목적을 두었으므로 전체문항의 평점을 아동의 전반적인 자아존중감 점수로 사용하였다.

#### 어머니의 양육신념

어머니의 양육신념을 측정하기 위해 안지영(2000)이 박성연과 김지신(1997)의 ‘어머니의 전통-근대 가치관’ 및 Segal(1985)의 ‘Maternal Beliefs and Values Q-sort’ 등의 척도들 중에서 선택한 문항들과 스스로 개발한 문항들을 합하여 제작한 후 안지영(2000)과 고윤희(2001)의 연구에서 타당화하여 활용한 척도가 사용되었다. 본 척도는 두 가지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진 척도로서 어머니의 인성강조/지적성취강조 신념에 대한 척도 12문항과 성숙주의/환경주의 신념에 대한 척도 9 문항, 총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 각 하위요인의 문항신뢰도는 Cronbach  $\alpha=.78$  와 Cronbach  $\alpha=.76$  로 측정되었다. 각 문항은 7점 척도로, 점수가 1에 가까울수록 인성강조 또는 성숙주의 신념을, 7에 가까울수록 지적성취 또는 환경주의를 강조하는 신념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첫 번째 하위요인 인성강조 대 지적성취강조 신념에서 인성강조 신념이란 어머니가 자녀의 발달 목표로 인성을 중시하는 신념을 가진 것을 의미하며 자녀의 학업 성취보다는 성격과 사회성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뜻한다. “아이의 성격이 좋은 것이 공부를 잘하는 것보다 중요하다.” 등의

입장에 긍정적인 응답을 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반면 지적성취강조 신념은 어머니가 자녀의 학업 성취에 더 큰 비중을 두는 신념으로 “친구가 많은 것보다 공부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등의 입장에 긍정적인 응답을 한 경우이다.

두 번째 요인인 성숙주의 대 환경주의 양육신념에서 성숙주의신념이란 자녀의 발달에 대해 ‘성숙’을 강조하는 입장을 가진 것을 의미하며, 유전적인 요인을 믿는 것을 뜻한다. “어려서 까다로운 성격은 커서는 괜찮아 질 것이다.” 등의 입장에 긍정적인 응답을 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에 반해 환경주의신념이란 자녀의 발달에 대해 ‘환경’의 영향력을 강조하는 신념을 가진 것을 의미하며 “자녀의 까다로운 면은 어릴 때 부모가 바로잡아 주어야 나중에 괜찮아진다.” 등의 입장에 긍정적인 응답을 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의 측정은 안지영(2000)이 번안하여 타당화한 Floyd, Gilliom과 Costigan(1998)의 ‘Perceive Parenting Competence’ 척도가 사용되었다. 이 척도는 부모의 자신감을 측정하는 ‘Parenting Confidence Scale’과 부모 역할에서 자녀를 통제하는 것을 측정하는 ‘Under Control Scale’로 구성되었다. 총 1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본 연구에서 측정된 문항 신뢰도 Cronbach  $\alpha=.78$ 이었다. Likert 식 4점 척도로서 ‘거의 그렇지 않다’는 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는 2점, ‘대체로 그런 편이다’가 3점, 그리고 ‘매우 그렇다’는 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 역할에 대한 자신감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척도 문항의 3, 5, 7, 8, 9, 10, 14, 15번 문항은 역 코딩하여 사용되었다.

**연구절차**

예비조사는 내국인 어머니와 중국계 이주 어머니 각각 두 명과 그들의 자녀 만 4, 5세 유아 각각 두 명씩 총 여덟 명을 선정하여 검사 내용에 대한 이해와 질문 문항의 답변 어려움 여부 및 검사시간을 알아보고자 실시되었다. 중국계 이주 어머니의 언어적인 편의를 위해 중국어와 한국어 이중언어에 능통한 번역자와 연구자가 상의하여 연구에서 묻고자 하는 의미가 정확히 전달 될 수 있도록 설문지를 번역하였으며, 중국어 원어민의 감수를 거쳐 수정하였다. 예비조사에서 각 문항의 질문 이해와 답변 선택에 있어 조사대상자들은 별 다른 어려움을 보이지 않았으며, 각 유아의 자아존중감 면담은 약 15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본 조사는 중국계 이주 어머니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다고 알려진 서울특별시 K구의 다문화가정 밀집거주 지역에서 진행되었다. 선정된 지역에서 내국인 어머니 및 중국계 이주 어머니의 유아를 함께 수용하고 있는 유아교육 기관들을 개별 방문하여 그들의 협조를 의뢰하고, 수락한 기관을 통해 한국어와 중국어로 작성된 어머니의 인구학적 배경을 묻는 질문지와 어머니의 양육신념 및 양육효능감 설문지를 먼저 배부하였다. 배부 후 2주일에서 3주일 후 기관을 재방문, 어머니 설문지가 회수된 유아를 대상으로 유아 자아존중감 검사를 실시하였다. 유아 자아존중감 검사는 기관 내 검사 장소를 정해 연구자가 직접 유아와 일대일로 검사하였으며,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유아의 경우 검사 요령을 숙지시킨 척도 번역자의 협조를 얻어 검사를 진행하게 하여 반응을 관찰하였다. 유아의 의사소통 능력이 자신의 의도를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 될 경우, 유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동일내용의 그림척도를 활용하였다.

**자료분석**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배경 n(%) = 306

일반적 배경		내국인 (n=203)	중국계 (n=103)
유아 연령	만3세	19(9.4)	11(10.7)
	만4세	60(29.6)	34(33.0)
	만5세	79(38.9)	33(32.0)
	만6세	45(22.2)	25(24.3)
	20~25	2(1.0)	2(1.9)
연령	26~30	10(4.9)	16(15.5)
	31~35	75(36.9)	43(40.8)
	36~40	89(43.8)	34(33.0)
	41~45	23(11.3)	6(5.8)
	46~50	4(2.0)	3(2.9)
어 학 어 니	중학교 졸업이하	0(0)	9(8.7)
	고등학교졸업	47(23.2)	59(57.3)
	전문대졸업 또는 대학중퇴	51(25.1)	24(23.3)
	대학교졸업	92(45.3)	9(8.7)
	대학원이상	13(6.4)	2(1.9)
월 평 균 수 입	100만원 미만	2(1.0)	1(1.0)
	100~199만원	17(8.4)	32(31.1)
	200~299만원	57(28.1)	42(40.8)
	300~399만원	52(25.6)	17(16.5)
	400~499만원	28(13.8)	7(6.8)
500만원	47(23.2)	4(3.9)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확인과 변인들을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통계를 이용해 평균 및 빈도와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연구문제 분석에서 연구문제 1의 내국인과 중국계 이주 어머니 간의 양육신념,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자아존중감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 2의 유아의 개인변인(유아 연령, 내국인 어머니와 중국계 이주 어머니



의 양육신념, 양육효능감 및 개인변인(학력, 월평균 수입, 어머니 연령)과 유아의 자아존중감의 관계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 3은 유아의 개인변인(유아 연령), 내국인 어머니와 중국계 이주 어머니의 개인변인(학력, 월평균 수입, 어머니 연령), 양육신념 및 양육효능감이 유아의 자아존중감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결 과

본 연구에서 분석된 내국인 어머니와 중국계 이주 어머니 및 그 유아의 일반적 배경은 표 1에 제시되어있다.

#### 내국인 어머니와 중국계 이주 어머니 간의 양육신념,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자아존중감

내국인 어머니와 중국계 이주 어머니 간의 양육신념,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자아존중감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 및 차이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같았다. 내국인 어머니와 중국계 이주 어머니의 양육신념과 양육효능감 및 양 집단 유아들의 자아존중감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 내국인 어머니의 유아 자아존중감이 중국계 이주 어머니의 유아의 자아존중감보다 높고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또한 내국인 어머니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양육신념 중 인성/지적성취강조 신념을 보면 양쪽 문화의 어머니 모두 평균점수가 지적성취보다는 인성성취를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내국인 어머니( $M = 2.24, SD = .81$ )가 중국계 이주

표 2 내국인 어머니와 중국계 이주 어머니 간의 어머니의 양육신념, 양육효능감 그리고 유아의 자아존중감의 차이검증

변인	어머니 국적	<i>M</i>	<i>SD</i>	<i>t</i>
양육신념	인성/지적 (n=203)	2.24	.81	-4.16***
	중국계 (n=103)	2.7	.96	
어머니	인성/숙환경 (n=203)	4.17	.99	-4.9***
	중국계 (n=103)	4.77	1.05	
양육효능감	내국인 (n=203)	2.6	.36	4.24***
	중국계 (n=103)	2.4	.32	
유아 자아존중감	내국인 (n=203)	3.10	.49	7.02***
	중국계 (n=103)	2.62	.60	

\*\*\*  $p < .001$

어머니( $M = 2.7, SD = .96$ )보다 유의미하게 낮아( $t = -4.16, p < .001$ ) 내국인 어머니가 인성강조 신념에 더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양육신념 중 성숙/환경주의 신념 또한 양쪽 문화의 어머니 모두 성숙주의보다는 환경주의 신념에 더 가까우나 내국인 어머니( $M = 4.17, SD = .99$ )가 중국계 이주 어머니( $M = 4.77, SD = 1.05$ )보다 유의미하게 낮아( $t = -4.9, p < .001$ ) 중국계 이주 어머니가 환경주의 신념을 더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살펴보면 내국인 어머니( $M = 2.6, SD = .36$ )가 이주 어머니( $M = 2.4, SD = .32$ )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

다( $t = 4.24, p < .001$ ). 유아의 자아존중감 또한 내국인 어머니의 유아가 ( $M = 3.10, SD = .49$ )가 이주 어머니의 유아( $M = 2.62, SD = .60$ )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t = 7.02, p < .001$ ).

**유아의 개인변인(유아 연령), 내국인 어머니와 중국계 이주 어머니의 개인변인(학력, 월평균 수입, 어머니 연령), 양육신념과 양육효능감 및 유아의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유아의 개인변인(유아 연령), 내국인 어머니와 중국계 이주 어머니의 개인변인(학력, 월평균 수입, 어머니 연령) 및 양육신념과 양육효능감은 유아의 자아존중감과 관계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내국인 어머니와 중국계 이주 어머니 두 집단으로 나누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각각 표 3, 표 4 와 같다.

먼저 표 3 은 내국인 어머니 가정의 유아개인변

인, 어머니 개인변인, 양육신념 및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자아존중감과의 상관관계이며, 어머니의 양육신념 척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지적성취, 환경주의 신념에 가깝고, 점수가 낮을수록 인성강조, 성숙주의 신념에 가깝다. 내국인 어머니의 양육신념 중 인성/지적성취강조 신념과 성숙/환경주의 신념은 어머니의 학력과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이는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인성강조 신념과( $r = -.14, p < .05$ ) 성숙주의 신념을( $r = -.26, p < .01$ ) 가지고 있음을 나타냈다. 어머니의 신념 중 성숙/환경주의 신념은 어머니의 연령과( $r = .17, p < .05$ ) 정적상관을 나타냄으로써 어머니의 연령이 높을수록 성숙주의 신념을, 어머니의 연령이 낮을수록 환경주의 신념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냈다.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어머니 자신의 학력( $r = .21, p < .01$ ) 및 월평균 수입과( $r = .30, p < .01$ )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유아의 자아존중감은 유아자신의 연령( $r = .20, p < .01$ ) 및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r = .15, p < .05$ ) 정적 상관관계를 나

표 3 내국인 어머니와 유아의 개인변인, 양육신념, 양육효능감 및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  $n = 203$

		1	2	3	4	5	6	7	8
어 머 니 변 인	1 연령	1							
	2 학력	-.11	1						
	3 월평균 수입	.12	.42**	1					
	4 인성/지적 성취 강조	.12	-.14*	-.01	1				
	5 성숙/환경 주의 강조	.17*	-.26**	-.06	.21**	1			
6 양육 효능감	.06	.21**	.30**	-.11	-.00	1			
유아 변 인	7 연령	.12	.03	-.03	.06	.10	.12	1	
	8 자아 존중감	.00	.09	-.10	-.08	-.08	.15*	.20**	1

\* $p < .05$ . \*\* $p < .01$ .

표 4 중국계 이주 어머니와 유아의 개인변인, 양육신념, 양육효능감 및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 n = 103

		1	2	3	4	5	6	7	8
어 머 니 변 인	1 연령	1							
	2 학력	-.19*	1						
	3 월평균 수입	.02	.26**	1					
	4 인성/지적 성취 강조	-.16	-.08	.04	1				
	5 성숙/환경 주의 강조	-.15	-.06	-.03	.21**	1			
6 양육효능감	.05	.13	.12	-.11	.05	1			
유 아 변 인	7 연령	.11	-.15	-.10	-.05	-.24*	-.21*	1	
	8 자아존중감	.14	.12	-.00	.03	.02	.20*	.11	1

\* $p < .05$ . \*\* $p < .01$ .

타냈다.

표 4는 중국계 이주 어머니 가정의 유아의 개인변인, 어머니의 개인변인, 양육신념, 양육효능감 및 유아의 자아존중감과 상관계수 결과이다. 중국계 이주 어머니의 양육신념 중 성숙/환경주의 신념은 유아의 연령과( $r = -.24, p < .05$ ) 부적상관을 나타냄으로써 유아의 연령이 높을수록 어머니는 성숙주의 신념을 보이고, 유아의 연령이 낮을수록 어머니는 환경주의 신념을 보임을 알 수 있다. 중국계 이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유아의 연령과( $r = -.21, p < .05$ ) 부적상관관계를 나타냄으로써 유아의 연령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낮게 보고되고, 유아의 연령이 낮을수록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내국인 어머니의 경우처럼 이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어머니의 학력이나 월평균 수입과는 무관한 경향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유아의 자아존중감은 중국계 이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r = .22, p < .05$ )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냄으로써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 유아의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계 이주 어머니의 유아 자아존중감이 내국인 어머니의 유아들과 동일하게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유아 자신의 연령과는 이렇다할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은 점이 내국인 어머니의 유아들과 비교되는 부분이다.

#### 유아의 개인변인(유아 연령), 내국인 어머니와 중국계 이주 어머니의 개인변인(월평균 수입, 학력, 어머니 연령), 양육신념과 양육효능감이 유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연구문제 2의 상관분석결과, 내국인 유아의 연령은 유아 자신의 자아존중감과 정적 상관이 있고 중국계 이주 어머니 유아의 연령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변인, 어머니의 양육신념 및 양육효능감이 유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고자 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단계를 설정하여 위계적 회

표 5 내국인 어머니 유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위계적 회귀분석 검정결과 n = 203

단계	1	2	3	R <sup>2</sup>	ΔR <sup>2</sup>	ΔF	P
1. 유아의 연령	.19**	.20**	.18*				
월평균 수입	-.16*	-.15	-.19*				
어머니 학력	.15*	.13	.11				
어머니 연령	.02	.03	.03	.07		3.53**	.01
2. 인성/지적성취 신념		-.06	-.04	.08	.01	.85	n.s.
성숙/환경주의 신념		-.07	-.07				
3. 양육효능감			.16*	.10	.02	4.69*	.05

\*p < .05. \*\*p < .01.

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단계 1에서 유아의 개인변인(유아 연령) 및 내국인 어머니와 중국계 이주 어머니의 개인변인(학력, 월평균 수입, 어머니 연령)을 투입하였다. 다음으로 단계 2에서 어머니의 양육신념인 인성/지적성취 강조신념과 성숙/환경주의 신념을, 그리고 마지막 단계 3에 자아존중감과 상관이 나타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투입하여 결과를 알아보았다. 이는 각각 표5, 표6 과 같다.

표 5 는 단계 1에 투입된 변인들 중 내국인 어머니 유아의 연령( $\beta = .19, p < .01$ ), 가정의 월 평균 수입( $\beta = -.16, p < .05$ ) 및 어머니 학력( $\beta = .15, p < .05$ )이 유아의 자아존중감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였으며 설명력은 7%로 나타났다( $F = 3.53, p$

< .01). 단계 2는 단계 1에 어머니의 양육신념을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로, 어머니의 인성/지적성취 강조 신념과 성숙주의/환경주의 신념 모두 유아의 자아존중감에 유의미한 영향( $\beta = -.06, n.s., \beta = -.07, n.s.$ )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단계 3은 단계 2에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유아의 자아존중감에 유의미한 영향( $\beta = .16, p < .05$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아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추가한 결과 설명력은 10%로 단계1보다 3% 증가( $\Delta F = 4.69, p < .05$ )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계적 회귀분석의 3단계 를 통해 유아의 개인변인과, 내국인 어머니의 개인

표 6 중국계 이주 어머니 유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위계적 회귀분석 검정결과 n = 103

단계	1	2	3	R <sup>2</sup>	ΔR <sup>2</sup>	ΔF	P
1. 유아의 연령	.11	.13	.18				
월평균 수입	-.04	-.05	-.06				
어머니 학력	.18	.20	.18				
어머니 연령	.16	.19	.17	.06		1.46	n.s.
2. 인성/지적성취 신념		.07	.10	.07	.01	.59	n.s.
성숙/환경주의 신념		.07	.07				
3. 양육효능감			.22*	.11	.05*	4.95*	.05

\*p < .05.

변인, 양육신념과 양육효능감은 유아의 자아존중감에 대해 총 10%의 설명력을 가지며 단계1, 2에 비해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2% 설명력을 증가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유아의 개인변인(유아 연령), 내국인 어머니의 개인변인(학력, 월평균 수입, 어머니 연령)을 통제했을 때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유아의 자아존중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은 유아의 개인변인(유아 연령), 중국계 이주 어머니의 개인변인(학력, 월평균 수입, 어머니 연령)을 통제했을 때 어머니의 양육신념 및 양육효능감이 유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한 결과로 내국인 어머니와 같은 방법으로 단계를 설정하여 동일한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중국계 이주 어머니의 유아 자아존중감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beta = .22, p < .05$ )이외에 어떠한 개인변인이나 양육신념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내국인 어머니 및 유아, 그리고 중국계 이주 어머니 및 유아를 대상으로 어머니의 양육신념,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자아존중감의 차이를 알아보고 변인들 간의 관계가 집단별로 어떠한지 유아와 어머니의 개인변인, 어머니의 양육신념, 양육효능감이 유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집단별로 나누어 알아보았으며 그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내국인 어머니와 중국계 이주 어머니 두 집단을 나누어 어머니의 양육신념 및 양육효능감, 그리고 유아의 자아존중감 세 변인들 사이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어머니의 양육신념 중 인성/지적 성취강조신념에서 내국인 어머니와 중국계 이주

어머니의 평균 점수가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으며, 내국인 어머니가 보다 인성을 강조하는 쪽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양쪽 모두 지적 성취보다는 인성 강조 신념에 가까운 경향을 나타냈으며, 이러한 결과는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대체로 인성강조 신념을 가졌다는 고유희(2001)와 안지영(2000)의 선행 연구결과와 일치했다. 또한 양육신념 중 어머니의 성숙/환경주의 강조신념에서도 두 집단 간에 평균 점수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양 집단 모두 환경주의 신념에 가까운 결과를 보임으로서, 어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은 자녀의 인지 발달에 대해 부모의 영향을 더 중시하는 환경주의 신념을 나타낸다는 선행연구들(고유희, 2001; 안지영, 2000; Segal, 1985)을 뒷받침 하였다. 이 결과는 조사대상 어머니들의 전반적인 양육신념이 지적성취에 비하여 인성을 보다 강조하고 발달에 대해 외부의 영향력을 더 인정하는 경향을 가지지만 출신 국적에 따라 어느 정도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의 경우, 내국인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평균점수가 중국계 이주 어머니의 평균점수보다 높았으나 양 집단이 모두 보통 이상의 양육효능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국인 어머니와 중국계 이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차이가 나타난 것은 한국과 중국 어머니 양육효능감의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한 김염춘(2012)의 연구결과와 달랐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 중국 어머니와 중국계 이주 어머니의 양육환경 차이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자녀와 비교대상이 되는 다른 유아가 비슷한 육아관 및 양육방식을 공유하는 이웃의 자녀인 중국 내륙 어머니는 자녀와 다른 유아의 성취 차이를 자신보다는 자녀의 재능이나 학습능력의 차이로 생각하기 쉬운 반면, 중국계 이주 어머니는 그 이유를 내국인 어머니와 다른 자신의

양육방식에서 찾기 쉽기 때문이다. 즉 자녀의 성취가 부정적일 때 상대적으로 느끼는 압박감이나 상실감이 커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게 되리라 예상할 수 있다.

유아들의 자아존중감 또한 내국인 어머니의 유아들이 중국계 이주 어머니의 유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수의 중국 연구자들(謝春風, 2004; 刁麗君, 2011)은 중국아동의 자신감 부족이 부모의 지나치게 높은 기대수준과 관계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부모의 아동에 대한 기대수준이 전통적으로 높은 까닭에 이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유아들은 잦은 실패감을 경험하고, 유아로 하여금 소극적이고 비관적인 열등감을 갖게 만든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계 어머니의 과잉기대가 해당 가정 유아의 자아존중감이 내국인 어머니 가정 유아보다 다소 떨어지는 결과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 해볼 수 있다.

둘째, 유아의 개인변인(유아 연령), 내국인 어머니와 중국계 이주 어머니의 개인변인(학력, 월평균 수입, 어머니 연령), 양육신념과 양육효능감 및 유아의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내국인 어머니와 중국계 이주 어머니 두 집단 간에 차이가 나타났다. 먼저 내국인 어머니 양육신념의 경우 학력이 높을수록 인성강조와 성숙주의신념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주화(2010)의 연구결과와 같지만, 부모의 학력과 지적성취 강조신념의 정적상관을 보고한 고윤희(2001)의 연구결과와는 차이를 보였다. 양육효능감은 어머니의 학력 및 월평균 수입과 관련이 있었으며, 어머니의 학력과 가정의 월평균 수입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높다는 선행연구(Teti & Gelfand, 1991)를 뒷받침 한다. 어머니의 학력과 가정의 월평균 수입이 높을수록 양육효능감이 높은 이유에 대해 최순희(2012)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직업수준에 따른 소

득수준이 상승하며, 이를 통해 획득된 경제적 여유가 자녀 양육에 있어 자신감을 불어넣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중국계 이주 어머니는 유아의 모든 연령에서 환경주의 신념이 더 높았으나, 유아의 연령 증가와 더불어 환경주의 신념에서 성숙주의 신념으로 양육신념이 이동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서 성숙주의를 강조하는 신념을 보인다는 이주화(2010)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그러나 중국계 이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유아의 연령과 부적상관관계를 보인 반면 다른 어떠한 개인변인과도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는 내국인 어머니들과 달리 중국계 이주 어머니들의 학력은 물론 월평균 수입 또한 양육효능감에 뚜렷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선행연구(Teti & Gelfand, 1991)와 다른 결과를 보였지만 중국 내륙 어머니들의 개인변인이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김영춘(2012)의 연구결과와는 유사한 결과이다.

내국인 어머니와 중국계 이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개인변인이 상이한 이유로 중국과 한국의 유아교육 환경 및 가치관의 차이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중국의 유아교육 수준은 문화혁명의 여파와 전통적으로 열악했던 유아교육 환경과 그에 대한 인식수준의 정체로 인해 여러 교육 선진국들에 비해 뒤쳐진 상황이다(史慧中, 2000). 이에 더해 경제발전이 치우친 공산당 주도의 정책 기조와 사회적 풍토는 국민들의 사회 전반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형성에 있어 우리나라와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즉, 이러한 성장환경의 차이가 중국계 어머니의 양육에 대한 가치관과 인식에 영향을 미쳐 어머니로서의 양육효능감을 형성하는 요인 및 영향력의 크기가

내국인 어머니와 구별되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내국인 어머니와 중국계 이주 어머니 양 집단 모두에서 어머니의 양육신념과 양육효능감이 관련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 결과는 어머니의 양육신념과 양육효능감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정한 본 연구의 가설과는 차이를 보이지만 동일한 척도를 사용한 안지영(2000)의 선행연구에서도 어머니의 양육신념과 양육효능감 사이에 뚜렷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안지영(2000)은 사용된 양육신념 척도가 자녀의 발달목표로서 인성/지적성취를 강조하는 내용과 자녀 발달에 대한 영향력으로서 성숙/환경주의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인 양육효능감과 관계가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고 해석하였다. 이는 부모의 양육효능감이 자녀에 대한 발달에 대한 신념이나 믿음이 아니라 자녀의 친사회성이나 적응력과 같은 발달적 결과에 대한 피드백 등의 다른 결과적 요인에 의해 더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후속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내국인 어머니의 유아 자아존중감은 유아 자신의 연령과 관련이 있었으며 이는 유아의 연령이 자아존중감과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고진영, 이경화, 2001)를 뒷받침 하는 결과로서 유아의 성장과 함께 자아존중감 역시 상승함을 알 수 있다. 즉, 유아의 연령 증가와 함께 발달하는 신체적, 인지적 능력이 유아에게 자신감을 불어넣고 유아가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형성하고 발달시킬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여겨진다. 반면 중국계 이주 어머니 유아의 자아존중감은 유아 자신의 연령과 관련이 없었다. 이는 중국 부모가 일반적으로 자녀에 대한 과잉기대의 경향을 보이고 부모의 높은 기대수준에 대한 부담감 및 과잉기대를 만족시키는데 실패

하는 유아의 경험 증가가 스스로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감소시키고 심리적으로 위축하게 할 수 있다(謝春風, 2004; 刁麗君, 2011)고 밝힌 선행연구의 결과를 통해 그 이유를 추측해볼 수 있다. 즉, 연령이 증가하면서 겪게 되는 실패 경험의 증가가 자아존중감 발달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 더불어 중국계 이주 어머니의 유아들은 유아교육기관에서 생활하면서 경험하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이나 문화적 차이가 이들의 자아존중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리라 추측할 수 있다. 상당수의 중국계 이주 어머니의 유아들은 연구자와 면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내국인 유아들과의 관계에 있어 소외감을 토로하였으며, 내국인 유아들에게서도 또한 중국계 이주 어머니의 유아들을 자신들과 다른 집단으로 인식하는 태도가 상당수 관찰되었다. 이는 전 연령에 걸쳐 내집단 선호경향을 나타내는 한국인의 인종에 대한 특성을 지적인 선행연구(방희정, 노경란, 정수진, 2010)를 뒷받침 한다. 이러한 점들에 비춰볼 때, 이주민 가정 유아의 자아존중감의 발달은 가정 밖의 경험에 의해서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이러한 외부적 요인들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내국인 어머니와 중국계 이주 어머니의 유아 자아존중감의 경우, 양쪽 집단 모두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관련이 있었으며 이 결과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자녀의 자아존중감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이경옥, 전인옥, 1999) 결과와 같다.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자아존중감 사이의 정적 상관관계는 부모로서의 효능감이 온정, 격려, 한계 설정과 같은 긍정적 양육행동에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밝힌 최순희(2012)의 선행연구를

통해 뒷받침 된다. 이에 반해 내국인 어머니와 중국계 이주 어머니의 양육신념은 모두 유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국인 어머니와 중국계 이주 어머니의 양육신념과 유아의 자아존중감 사이의 상관관계를 밝히지 못한 본 연구의 결과는 어머니의 양육신념이 유아의 자아존중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밝힌 선행연구(홍성임, 2005)나 본 연구의 가설과 상이한 결과이다. 이에 대한 논의는 마지막 회귀결과에서 함께 논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내국인 유아의 연령은 유아 자신의 자아존중감과 관련이 있고 중국계 이주 어머니 유아의 연령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변인, 어머니의 양육신념 및 양육효능감이 유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내국인 어머니의 경우 유아의 개인변인인 연령, 어머니의 개인변인 중 가정의 월 평균 수입, 어머니의 학력이 유아의 자아존중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고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또한 유아의 자아존중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이중 주목할 만한 결과는 가정의 평균 수입이 높을수록 유아의 자아존중감이 낮아지는 부적상관관계가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가능한 설명으로 월 평균 수입의 증가가 부모의 외부 노동시간의 증가로 이어져 유아와의 상호작용시간이 감소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자세히 다루어지지 않았으나, 면담진행과정 동안 자아존중감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된 아이들의 상당수가 부모의 부재, 놀이나 책 읽기 등의 상호작용 및 소통의 부족을 토로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부모의 직업 수준, 노동시간, 그리고 유아와의 상호작용 시간 등의 관련변인과 유아의

자아존중감 사이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중국계 이주 어머니의 유아 자아존중감은 유아 개인변인 및 중국계 이주 어머니의 개인변인 중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자녀의 자아존중감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이경옥, 전인옥, 1999)결과와 일치하며 본 연구의 가설을 뒷받침 한다. 따라서 유아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해서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선행적으로 제고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에 반해 양육신념은 유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본 연구는 사용된 어머니의 양육신념 측정척도가 양 변인 사이의 영향을 밝히기에 적합하지 않거나, 어머니들이 보고한 양육신념과 실제 양육행동이 일치하지 않아 신념과 자아존중감의 관계 확인에 실패했을 가능성, 마지막으로 실제로 무관할 가능성의 세 가지 가능성을 제시한다.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적합한 측정도구와 보다 세심한 관찰을 통해 제시된 세 가지 가능성을 확인해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내국인 어머니 및 중국계 이주 어머니를 비교 분석한 본 연구에서 유의해야 할 몇 가지 제한점 및 추후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어머니 양육신념 및 양육효능감의 측정은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어머니의 양육신념 및 양육효능감 측정을 위해서 자위적으로 작성되는 자기보고식 설문지가 가지는 주관성을 배제할 수 있도록 면담 혹은 관찰 등이 보완된 보다 다양한 방식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유아의 자아존중감 척도는 연구자가 담당 교사의 배석 없이 격리된 공간에서 유아와 일대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대상 유아



들의 응답이 주변 환경에 의해 간섭 받는 것은 최소화 할 수 있었으나 심리적으로 위축되었을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후속 연구에서는 유아가 심리적으로 보다 편하게 대답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 K구의 다문화가정 밀집 거주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12개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만 3~6세 유아와 어머니를 대상으로 표본이 수집되었기 때문에, 지역적, 계층적, 그리고 소득층의 다양성에 한계를 지니고 있다. 또한 다른 국가와 달리 56개의 다민족으로 구성된 중국의 인종구성 특성상, 극히 일부 민족출신의 중국계 이주 어머니를 관찰한 본 연구 결과는 전체 중국계 이주 어머니 가정을 대표함에 있어서도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계 이주 어머니 가정 뿐 아니라 전체 다문화 가정 어머니 및 유아들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지역, 계층, 출신 국적 및 어머니 학력 등 다양한 변인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신념,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자아존중감과의 관계를 알아보는 후속연구를 제안하는 바이다. 특히, 이주 어머니의 출신 국가의 연구결과 또는 연구자들과의 협조를 통해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후속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유아의 자아존중감의 올바른 형성과 발달을 위한 몇 가지 정책적 지원을 제안하고자 한다. 현재 한정된 다문화 센터에 치우쳐진 이주 어머니에 대한 언어 및 육아관련 교육과 지원을 보다 접근이 용이한 종교 및 지역사회 공동체 등을 활용하여 다변화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더불어 주민 센터와 같은 주민 접근시설을 통한 내국인 및 이주 어머니들의 의식전환 교육과 심리적 거리감 해소를 위한 노력을 병행함으로써 자녀 세대에 올바르게 긍정적인 다문화 개념을 전수하고 또래관계를 통해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이

발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다문화사회로의 진입은 이제 부정할 수 없는 우리나라의 현실이며 그 속도 역시 빨라지고 있다. 이들 다문화가정의 유아가 내국인 가정 유아들과 더불어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출신국가와 종교, 문화를 바탕으로 한 후속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이를 토대로 체계적인 정책지원과 국민들 상호 간의 올바른 이해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참 고 문 헌

- 고진영, 이경화 (2001). 유아·아동기 자아존중감의 발달적 특성 탐색. *한국영유아보육학*, 25, 327-351.
- 고현경, 이승연 (2010). 만 4, 5세 유아와부모의 자아존중감 분석. *한국육아지원학회*, 5(1), 27-50.
- 고을희 (2001). 자녀의 성, 어머니의 취업 여부 및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양육신념과 양육행동.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경연 (1993). 어머니 관련 변인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아존중감: 종단적 자료의 인과적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6(1), 37-50.
- 김염춘 (2012). 한국과 중국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양육행동,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인천 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정란 (2003). 청소년기 자녀의 가정폭력 노출과 심리사회적 부적응.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53), 171-180.

- 김혜미, 원서진, 최선화 (2011).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차별경험과 심리적 적응: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검증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2(1), 117-149
- 김혜영 (2000). 초기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행동이 심리사회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00(10), 205-223.
- 문혁준 (2005). 취학 전 아동을 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관련 변인연구. 아동학회지, 26(5), 139-149.
- 박성연, 김지신 (1997). 어머니의 전통-근대 가치관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행동. 아동학회지, 18(1), 125-142.
- 박영애, 최영희, 박인진, 김향은 (2002).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아존중감간의 관계: 아동의 성에 따른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5(4), 43-60.
- 방희정, 노경란, 정수진 (2010). 다문화시대 한국인의 인종에 대한 암묵적 태도와 명시적 태도의 발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3(2), 125-140.
- 배경숙, 조희숙 (2004). 유아의 기질과 부모의 기질요구도 및 유아의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연구. 부산 유아교육학회지, 13(2), 137-152.
- 송명자 (1995). 발달심리학. 서울:학지사.
- 송미혜, 송연숙, 김영주 (2007). 유아기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사회적지지가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 열린유아교육학회, 12(5), 165-183.
- 신혜정 (2007). 다문화가정 자녀의 자아 정체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안선희, 김선영 (2004). 가족의 건강성과 양육효능감 및 유아의 사회적 행동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2(12), 219-230.
- 안지영 (2000). 2-3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신념, 효능감 및 스트레스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양순미 (2007). 농촌지역 다문화가족의 초등학생들의 학교생활적응과 가족생활행복에 작용하는 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2(4), 559-576.
- 외교통상부 (2012). 중국 개황.
- 이경옥, 전인옥 (1999). 유아의 자기효능감에 대한 인과모형 탐색-사회 경제적 지위, 어머니의 교육신념과 양육에 대한 자기효능감, 양육행동을 중심으로. 한국 유아교육학회지, 19(1), 169-187.
- 이주화 (2010). 어머니의 양육신념과 유아 다중지능의 연구. 숙명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진희 (2011). 유아의 외로움과 자아존중감, 또래유능성, 어머니 양육태도와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장정호 (2004). 중국 유아교육의 근대적 전환-청말 몽양원(夢養院)의 창설과 발전을 중심으로. 比較教育研究, 14(1), 143-162
- 전경숙 (1992). 부모 - 아동 간 신념의 일치도와 아동의 학업 성취도 및 자기능력지각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13(2), 251-272
- 최순희 (2012). 아버지의 부모 효능감 및 양육행동과 유아의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형성, 정옥분 (2005). 어머니의 양육효능

- 감에 대한 인과관계 모형: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 및 스트레스를 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12(1), 51-67.
- 통계청 (2007, 2011, 2012). 인구동태통계연보.
- 홍성임 (2005). 어머니의 양육신념 및 양육효능감이 유아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史慧中 (2000). *新中國幼兒教育簡史, 中國學前教育研究會*.
- 謝春風 (2004). 我國小學生學習自信心有待提高. *中國教育報*, 11(2), 7-16.
- 刁麗君 (2011). 한국과 중국 부모의 양육태도와 부모기대 및 아동의 학업적자기효능감 비교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Bee, H. (1978). *The developing child* (2nd Ed). New York, NY: Happer & Raw Pub, Inc.
- Blascovich, J., & Tomaka, J. (1991). Measures of self-esteem. In J. P. Robinson, P. R. Shaver, & L. S. Wrightsman(Eds) *Measures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ical attitudes*, Volume I. San Diego, CA: Academic Press.
- Branden, Nathaniel. (1994). *The six pillars of self-esteem*. New York: Bantam.
- Buist, K. L., Dekvoic, C. M., Meeus, W., & Aken, M. G. (2003). Development patterns in adolescent attachment to mother, father, sibling.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1(3), 167-176.
- Coleman, P. K., & Karraker, K. H. (1998). Self efficacy and parenting quality: Finding and future application. *Developmental Review*, 18, 47-85.
- Coopersmith, S. (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 Francisco :Freeman.
- Floyd, F., Gilliom, L. A., & Costigan, C. L. (1998). Marriage and the parenting alliance: Longitudinal prediction of change in parenting perceptions and Behavior. *Child Development*, 69(5), 1461-1479.
- Gecas V., & Schwalbe, M. L. (1986). Parental behavior and adolescent self-esteem.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8, 37-36.
- Goodnow, J. J. (1988). Parents' ideas action and feelings: Models and methods from developmental and social psychology. *Child Development*, 59(2), 286-320.
- Goodnow, J. J., & Collins, W. A. (1990). *Development according to parents: The nature, sources, and consequences of parents' ideas*. Hillsdale, N.J.: L. Erlbaum Associates.
- Harter, S., & Pike, R. (1984). The pictorial scale of perceived competence and social acceptance for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 55, 1969-1983.
- Johnston, C., & Mash, E. J. (1989). A measure of parenting satisfaction and efficac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18*, 67-175.
- Miller, S. A. (1988). Parents' beliefs about children's cognitive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59*(2), 259-285.
- Mondell, S., & Tyler, F. B. (1981). Parental competence and styles of problem solving/play behavior with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17*, 73-78.
- Richards, M. H., Gitelson, I. B., Petersen, A. C., & Hurtig, A. L. (1991). Adolescent personality in girls and boys: The role of mothers and fathers. *Psychology of Woman Quarterly, 15*, 65-81
- Segal, M. (1985). A study of maternal beliefs and values within the context of an intervention program In I, E, Sigel (Ed). *Parental belief systems: The psychological consequences for children. 271-286.*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Teti, D. M., & Gelfand, D. M. (1991). Behavioral competence among mothers of infants in the first year: Mediation role of maternal self-efficacy. *Child Development, 62*, 918-929.

---

1차 원고 접수: 2013. 04. 15.

수정 원고 접수: 2013. 05. 26.

최종 게재 결정: 2013. 05. 29.

# A Study on the Relationship of Maternal Parenting Belief and Efficacy on Children's Self-esteem -With Specific Focus on Mothers of Native Korean and Chinese Immigrant-

Eun-Jeong Bang

Jihyun Sung\*

Dept. of Child Psychology and Educ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s of maternal parenting belief and efficacy on a children's self-esteem through the comparison between Korean mothers and Chinese immigrant mothers with their children. The result of this research shows that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native Korean mothers and Chinese immigrant mothers' maternal parenting belief and efficacy and their children's self-esteem. Native Korean mother's maternal parenting efficacy and their children's self-esteem were higher than Chinese immigrant mothers' and their children's. The results also shows that both Korean and Chinese immigrant mothers' efficacy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ir children's self-esteem. However, the result that the children of Chinese immigrant mothers, who have generally lower maternal parenting efficacy than Korean mothers, have less positive self-esteem than the children of Korean mothers, suggests that the maternal parenting efficacy has an important effect on developing children's positive self-esteem.

*Keywords : chinese immigrant mothers, maternal parenting belief, maternal parenting efficacy, children's self-esteem*

